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거점 4곳 · 학부모 놀이교실 5곳 등… 도교육청,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 변화 반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공·사립유치원을 아우르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형 거점유치원'과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감염병, 기후변화,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등의 4차 산업기반 디지털 교육, 원격수업 등 미래사회와 지구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유아들이 세상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운영된 원격수업과 디지털 활용 교육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필요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러한 유치원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거점유치원 4개 원(공립 2개 원, 사립 2개 원),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5개 원(공립 3개 원, 사립 2개 원)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미래형 거점유치원'은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해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AI를 활용한 유아 놀이 지원 방안 마련 ▲유치원 온라인 소통 및 연계 교육 연구 ▲디지털 환경 경험을 반영한 미래형 유치원 과정 운영 등을 모색한다.

또한'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은 유치원-가정 연계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가정 내 유아 놀이 지원 등 부모의 놀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유치원으로 온·오프라인 학부모 놀이교실과 학부모가 참여·주도하는 수업기회 제공 및 수업 참관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정 이해 및 놀이연계자료 제작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래형 유치원에는 원당 2,000만원, 학부모 놀이교실 유치원에는 원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연간 2회 이상의 현장 컨설팅과 모니터링·수업 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형 유치원은 단순하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영상 콘텐츠를 확장하는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환경에서 유아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그리고 유아·놀이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미래교육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아이들 심리 회복에 주력"

김윤태 우석대 교수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대전환시대 공교육 새 표준 적립할 최적임자"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전북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교수는 2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어려움, 학습격차 심화 등 전북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현재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부재, 성찰 부족,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학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회복교육 집중, 교육청 행정인력의 각급 학교로의 지원, 행복한 청년기, 공교육 책임성 강화, 지역에 밀착한 현장체험형 진로교육, 유아·초등 돌봄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은 지지발언을 통해 "김윤태 교수는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로서 드물게 전문성과 정치력, 듬직함과 섬세함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감후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의 본질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며, 대전환시대 공교육의 새 표준을 정립할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원회장을 맡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김윤태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이재명 상임고문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위기에 강한 일 잘 하는 김윤태 후보의 지지와 선전을 기원한다"면서,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앞으로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 전북교육으로 새바람을 일으켜, 대한민국 교육의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윤태 후보의 학생행복 선대본은 이재명 캠프의 주요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가정교사이자 대선캠프의 정책을 총괄한 이한주 교수(전 경기연구원 원장, 가천대 명예교수)가 후원회장을 맡고, 캠프의 교육특보단 단장을 맡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강승규 우석대 대학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이우종 대표(전 경기 아트센터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송기도 교수(전 콜롬비아대사, 전북대 교수)가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한편 김윤태 교수는 독일 마부르크 필립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심리운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 열 것"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미래교육 6대 공약 발표

교실혁명 · 공간혁신 · 전북미래교육원 등이 골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형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 예비후보는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전북교육은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면서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교실혁명 ▲학생중심 공간혁신 ▲전북형 미래학교 ▲미래교육캠퍼스 ▲전북미래교육연구원 ▲미래형 문화예술체육 교육 등이다.

특히 교육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학생 중심 공간혁신 등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 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미래교육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학생 개인용 스마트기기 제공 등 에듀테크(교육+정보통신기술) 교육환경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코딩교육을 비롯해 AI(인공지능), XR(확장현실), 메타버스 등을 접목한 수업혁신으로 교실혁명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사들의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학교 공간의 경우 학생 통제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교실, 지능형 과학실, 가상스포츠실을 구축해 학생 맞춤형수업, 창의융합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현관을 열린도서관, 공연장, 갤러리 기능이 더해진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실혁명과 학교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전북형 미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미래학교는 학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미래형 통합학교 등 다양한 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교육 플랫폼인 전북미래교육캠퍼스를 비롯해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권역별 미래교육캠퍼스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을 전북미래교육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미래교육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업혁신, 맞춤형 교수 학습, 평가 등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 유휴공간에 예술놀이터와 메타이트센터를 만들고, 전북창의교육센터를 조성하는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미래형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서 예비후보는"교육의 변화와 혁신이 지체된다면 학생들의 미래를 훼손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을 중심에 둔 건강한 미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서 미래가 있는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전북대를 전국적인 대학으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전국 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후원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직무 연수 실시

전북교육연수원서 1기 25일까지 · 2기 29~31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방교육재정과 교육과정, 환경교육 등 전북 교육 철학 및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교육전문직원의 이해를 돕고 학교 단위 교육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대상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로 240여명이 참여를 신청했다.

연수는 차수를 나눠 1기는 23~25일, 2기는 29~31일 각각 3일 간 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의 '불안의 시대를 풍요와 행복의 사회로 나아가기' 강의를 시작으로 전북교육청 최두현 사무관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황은주 사무관의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신희은 장학사의 '전라북도교육의 이해', 강혜연·정태식·이한윤 장학사의 '교육과정의 이해와 지원', 최원형 작가의 '지구를 살리는 환경교육' 등 주제별 강의가 마련됐다.

더불어 김승환 교육감의 특강과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전북교육'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공무 수행자로서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차츰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가 전북교육에 대한 이해 및 직무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북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새로 조성된 운동장서 마음껏'

완산중 · 완산여고 학교 운동장 준공식 열려

완산학원 정상화 과정 일환… 주민 건강증진 기여

학교법인 완산학원(관선이사장 차상철)은 22일 새로 조성된 풋살장에서 '학교 운동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전주시교육장을 비롯해 차상철 관선이사장, 오평근 도의원, 이남숙·양영환·송승용 기초의원, 완산중·완산여고 학생회장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양교 교장과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운동장 준공식으로 완산학원의 완산중학교 446명과 완산여고 200명의 학생들은 마음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완산학원은 22일 새로 조성된 풋살장에서 김승환 교육감, 차상철 완산학원 관선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산학원 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10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5억3,440여만 원을 들여 부지면적 4,988㎡에 풋살경기장(760㎡) 1면과 농구 경기장(434㎡)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운동장 조성사업은 완산학원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실제 2020년 6월 기준 운동장 기준면적 9,552㎡의 중 6,290㎡만이 확보돼 3,262㎡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감사원이 2011년 6월 7일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완산학원(완산중, 완산여고) 체육장 부족에 따른 학교시설(체육장) 확충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산학원 관선이사회는 2020년 7월 28일 전주시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제안 사전 자문회의를 거쳐 자체 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학생 체육시설을 갖춘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전주시는 2020년 9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회의에서 완산학원 소유 평화동 1가 산 161-4 번지 일원 부지 중 4,988㎡를 학교시설로 결정한다는 고시를 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완산학원 이사회에서는 완산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8억여 원을 전라북도교육청에 처분허가 신청·승인을 받아 2020년 10월 7일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통과시켰다.

이후 완산학원은 전주교육지원청의 설계자문, 운동장 시공자문 등을 거쳐 운동장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렇듯 전주시의 협조와 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산학원 운동장 조성사업이 마침내 완공됐다.

차상철 관선이사장은 완공식 축사에서"새롭게 조성된 풋살경기장과 농구경기장에서 완산중·완산여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평화동 주민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완산여고의 낡은 건물을 개축하는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완산학원은 지난 시절의 불명예를 씻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재단 비리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완산학원(완산중·완산여고)은 2019년 9월 차상철 관선이사장을 비롯해 임시관선이사 파견 이후 신규교사 채용(완산여고 5명, 완산중 13명), 학교 급식실 급식 품질 개선,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 조성(완산여고 관광서비스과 커피 바리스타 실습실, 카페, 호텔실습실, 항공실습실 등),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놀이시설 설치, 학생 자치 공간 조성, 노후교실 리모델링 등 학교 시설의 획기적 변화뿐만이니라 학생자치회와 민주적인 교무회의 운영, 수업방법의 혁신 등 교육 내용 부분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직원 전보인사 단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3월 21일자 교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박병춘 총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3월 취임에 맞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자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다"며, "뛰어난 우리 직원들이 되도록 많은 업무를 경험해보고 전문가적 역량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다.

◇6급 ▲노희준 교학팀장 ▲정두진 전주부설초 행정실장 ▲김난영 교무팀장 ▲박동룡 학생팀장 ▲박선미 재무팀장 ▲이동의 군산부설초 행정실장 ▲강석 기록관리팀장 ▲송보경 정보운영팀장 ▲김민선 정보개발팀장 ▲윤철현 전산운영팀장 ▲김정근 교육정보팀장

◇7급 이하(대학회계직 포함) ▲강민재 교육대학원 ▲김수영 총무처 ▲박민아 교무처 ▲김민욱 학생처 ▲전서령 총무처 ▲소성희 학생처 ▲정보우 기획처 ▲양지 군산부설초 ▲이다솜 교육대학원 ▲심민정 교무처 ▲방현옥 교무처 ▲심구보 총무처 ▲김창수 도서관 ▲양희정 기획처 ▲장유선 초등교육연구원 ▲김혜숙 전주부설초 /장은성 기자